

Youngeun News

동행

4월

2025년 464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color

2025 영은, 색을 입히다



“믿음이 없는 자여”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낮추고,
시작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하려 들고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14:1)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14:31~32) 

〈글·사진 : 서현이 기자〉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월간 동행 영은 홍보부

1984년 4월 27일 창간

발행일 제464호 / 2025. 4. 6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전화. 02-2676-7171~2

월간 동행 E-mail. yemagazine@naver.com

발행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집인 김석진 장로

편집차장 김창원 안수집사

서선이 권사

편집 서선이 김경원B 윤정림

기자 김명희C 서현이 이숙경

사진기자 허영준

디자인 디자인 샘

월간 동행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CONTENTS

02 그림이 있는 풍경

“믿음이 없는 자여” / 서현이 기자

04 생명의 말씀

전도의 정식, 추수하기 / 이승구 담임목사

07 믿고 알고 알고 믿고

명화와 함께하는 부활의 의미 / 김찬영 전도사(유년부)

08 동행

한국장로교회의 개척자 언더우드 선교사를 기억하며 / 손산문 목사

10 웹진 동행

유아부 안에 또 다른 공동체 새벽이슬같은 주의 청년들 /

차세원 통신원(유아부 교사)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꿈자람부 교사 M.T /

구현진 통신원(꿈자람부 교사)

12 영은 소식

영은문화아카데미 동계블록세미나 / 이병남(청년부)

복음에 합당한 색을 입히다 / 김혜경B 권사

또 하나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 더누림 수련회 / 이윤선(더누림 회장)

2025 올백데이 - 영은의 빛을 나누는 날 / 허 준 안수집사

16 교회창립기념특집

평생 영은교회를 잊지 못해요! / 박조준 목사

“영등포의 은혜로운 교회” / 최진삼 안수집사

영은교회 창립 65주년을 축하하며 / 이규곤 목사(남현교회 원로)

25 Color 찬양

“그가” / 채수범 지휘자(사온찬양대)

26 슬기로운 교회생활

교육3부 젊은 세대 공동체 더누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누리다 /

정성훈 목사

27 빼딱하게

하나님께서 더 아픈 채찍을 휘두르시기 전에, 우리는 / 이숙경 기자

28 교회안내

영은설악센터 자율기도회 실시

2025년 「월간 동행」 사역자 모집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월간 동행과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월간 동행」에서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월간 동행 이메일(yemagazine@naver.com)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편집회의 검토한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정석, 추수하기

(누가복음 10:2)



글 | 이승구 담임목사

예수님의 사역이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시점에 주님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셔서 직접 선발하여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토록 마음으로 아끼며 훈련해 온 제자들을 갑자기 사지로 몰아내시는 듯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눅 10:3)

자연계의 먹이사슬 구조에서 양은 이리의 먹잇감입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간다면 분명 지는 싸움이고 죽는 싸움인데, 예수님은 그런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눅 10:2)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추수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추수를 위해 보낸

받은 것입니다. 추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1) 추수는 언제 할까?

추수를 언제 해야 하는지 그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겨울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여름에 이미 준비가 끝나야 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는 방학에 맞추어 개봉해야 합니다. 이렇듯 생활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시기의 적절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헤롯왕이 사회적 동요의 주범이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새로운 위험 인물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눅 9:9).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시기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탄압이 점점 강해지고 있던 때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신변이 위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숨어 있는 편이 낫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적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가 추수의 최고 적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했던 제자들이 돌아와 놀라운 경험을 고백합니다.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눅 10:17).**

추수의 시기는 우리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있어도 그 때가 추수하기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상황에서도 장미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보내시는 때가 가는 것입니다.**

추수의 시기에 관한 다른 사건을 살펴 봅니다. 누가복음 5장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길고 허무한 밤을 보낸 후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찢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 물려든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무리가 대부분 흩어지자 예수님은 배 위에 앉아 베드로와 한담을 나눕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전날 밤 내내 그물을 던졌으나 허탕을 쳤던 베테랑 어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심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눅 5:5)

자기의 오랜 지식과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워 따르겠다는 시몬의 고백은 실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자

신의 계산법과 달리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눅 5:6)질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추수의 시기와 관련된 원리가 있습니다. 추수의 시기는 조건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수의 시기는 우리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추수의 시기는 어떠한 조건이든지,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가장 좋은 추수 시기입니다.

2) 추수는 누가 할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 적합한 인물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화성 이주를 준비하기 위해 화성으로 사람을 보낼 때, 기획 능력이 뛰어난 유능한 회사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심이 무척 강하고 남들보다 오래 참는 능력이 있다고 아무나 보낼 수 없습니다. 그에 맞는 훈련을 거친 우주인을 선발하여 보내야 합니다.

추수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리의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리와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라 어린 양이 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본받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고,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70인의 훈련된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목적은 이리들과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냄 받은 목적은 자신의 죽음으로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일 ‘잘’ 죽을 수 있는 시기에, 제일 ‘빨리’ 죽을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십니다.

추수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한 알의 밀’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내가 여기 있지 않은 것처럼 여겨 지기를 바랍니다. 대중 가운데서 익명의 누군가로 존재 하며 살아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선불리 앞에 나서 책임 지는 일을 하기 꺼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기를 회피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 시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해 주저하거나 다른 대상에게 달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반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올바른 반응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피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추수에 필요한 일꾼이 누구입니까? 그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라는 겸손하면서도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 전도의 정석, 추수하기

찬송가 508장의 작사가인 카셀은 성공적인 의사이자 침례교의 평신도 지도자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도에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는 복음 전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도 좋으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옆에 있던 그의 아내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란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말을 시로 쓰면 자신이 작곡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부부의 고백으로 탄생한 찬송이 바로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입니다.

추수는 언제 합니까?

추수의 시기는 조건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가장 좋은 추수 시기입니다.

추수는 누가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라는 겸손하면서도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하면서 **천사도 흠모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와 함께하는 부활의 의미



글 | 김찬영 전도사(유년부)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 | 렘브란트작 (1629년)

사순절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희망의 절기,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은 부활절마다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림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명암을 통해서 자신이 의도한 바를 표현한 화가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야경, 사스키아 초상화 등이 있는데요. 작품 대부분이 빛으로 그림의 의도를 잘 표현합니다. 빛과 어둠을 중심으로 렘브란트가 의도한 그림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작품은 누가복음 24장 13-35절을 배경으로 그려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많은 제자가 자신들이 있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본문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또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슬픈 얼굴을 띠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예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그들이 마침 먼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합니다. 성경

도 이들에게 눈이 가려졌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런 두 제자와 함께 그들의 집으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예수와 함께 밥을 먹으려는 두 제자 앞에서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렘브란트는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을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어두운 뒷모습으로 표현했죠. 렘브란트는 빛의 명암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암에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빛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빛이 전달됨을 표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부활 이후에 빛은 믿음의 제자들에게 갔으니, 예수께서 이 땅에 없어도, 우리에게 빛을 전하는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빛이 전달된 이들 모두 부활의 희망이 생겼기에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보다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삶(행 2:44-45)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빛이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기에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 사랑을 꽃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활절도 그 사랑의 능력을 마음껏 꽃피워서 나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지난날을 벗어나고 나누고 사랑의 행복을 알아가는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행)

[동행 : 언더우드 선교 140주년 기념]

한국장로교회의 개척자 언더우드 선교사를 기억하며



글 | 손산문 목사
(총회역사위원회 전문위원,
영남신대 특임교수)

1885년 4월 5일(부활주일)은 미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H. G. Underwood, 元杜尤)가 당시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첫걸음을 내디딘 날이다. 이후 올해로 14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한국장로교회는 세계 교회가 주목하는 성장을 이루었다. 의사인 알렌 선교사 다음이지만 목회자로서는 첫 장로교 선교사였고 그의 선교 사역이 한국장로교회의 기초가 된 만큼, 이즈음에 그를 다시 기억해 보는 것은 한국장로교회 교인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

언더우드는 1859년 영국 런던에서 부친 존과 모친 엘리자벳 사이에서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아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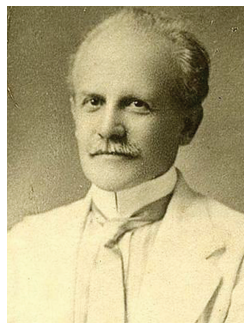
뉴브런스웁신학교

지의 신앙 교육과 지도에 따라 그와 형제들은 어릴 때부터 예배 참석, 성경 암송 등에 열심이었다. 특히 언더우드는 일찍부터 선교사를 꿈꾸며 성장했다. 그러나 6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2년간의 프랑스 유학 후,

13살 때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가난한 중에도 그의 형제들은 잉크 공장을 다니며 가정 살림을 도왔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는 뉴욕대학교와 뉴브런스웁신학교를 졸업하였다.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언더우드는 학업 성적도 우수했지만 매일 시내로 나가 전도에도 열심이었다. 이러한 전도 열정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선교사를 결단케 했다. 1884년 목사 안수를 받은 그는 좋은 조건으로 청빙하는 교회를 마다하고 해외 선교사로 나가기로 작정하였다.

■ 한국 최초의 목회 선교사가 된 언더우드

원래 인도 선교를 마음에 두었던 그는 신학교 때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던 올트만 목사의 방문을 통해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들었다. 당시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이제 해외 선교사를 모색하는 중 아직 한국 선교 지원



언더우드 선교사

자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너는 왜 못가느냐”는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는 네덜란드 개척교회와 미북장로교 해외 선교부를 찾아가 한국 선교를 지원했지만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하지만 때

마침 뉴욕시 브루클린에 위치한 라파예트장로교회 교인 맥윌리엄스가 6천 달러의 한국 선교 헌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로써 미북장로교 선교본부는 1884년 7월 28일 언더우드를 한국 최초의 목회 선교사(Clerical Missionary)로 임명하였다. 또한 그동안 그의 만형 존은 사업에 성공하여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 회사’를 세워 동생이 한국 선교를 하는 동안 든든한 재정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 언더우드의 한국선교는 한국장로교회의 초석이 되다



언더우드 사택

1884년 12월, 25세의 젊은 청년 선교사 언더우드는 샌프란시스코항을 출발하여 이듬

해 1월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하였다. 일본에 잠시 머무는 동안 임오군란 후 일본으로 건너가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수정을 만나 한국어를 배웠다. 그리고 이수정이 일본에서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고베, 나가사키를 거쳐 드디어 한국에 당도하였다. 아직 복음 선교는 허락되지 않은 의료, 교육만의 제한적 선교 상황에서 언더우드는 알렌에 의해 세워진 제중원(한국 최초의 근대 병원) 내 의학교에서 교수 사역으로 한국에서의 첫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후 고아원을 설립하여 독자적 사역을 전개한 그의 한국 선교는 오늘날 한국장로교회의 초석이 되었다고 할 만큼 중요한 흔적을 남겼다. 언더우드의 선교 사역은 크게 교육사업, 성경 번역 및 출판 사역, 교회 및 기관 설립, 의료 선교 지원 및 복음 전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의 첫 교육사업이었던 고아원은 후에 야소교학당을 거쳐 경신학교로 발전하였고, 이런 교육 열정은 피어슨 성경학원과 고등 교육 기관인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 설립까지 이루어냈다. 언더우드는 성경 번역위원회, 조선선교서회 등을 조직하고 『한국어문법』, 『한영사전』, 『그리스도 신문』, 『The Call of Korea』 등을 간행, 창간, 저술하였다. 그의 성경 번역 사역은 복음 전파와 함께 한글 보급과 발전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언더우드의 사랑방에서 시작된 정동교회(현 새문안교회 전신)는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가 되었고, 그에 의해 잔다리교회(현 서교동교회), 송마리교회 등 20여 개 교회가 설립되었다. 또 황성기독교청년회(현 서울YMCA)를 조직하여 기독교 청년들로부터 시민 사회 발전에 기여케 했다. 그리고 세브란스병원 설립을 도왔으며, 의료 선교사들과의 협력 선교로 조선의 의료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그의 모든 선교 활동은 한국 교회를 넘어 한국 사회 근대화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따라서 언더우드에 대한 기억 회상은 한국장로교회와 한국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역사를 깨닫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교단 총회 역사위원회는 2013년 미국 라파예트교회를 방문하여 언더우드 선교사 파송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한국 교회 해외 기념지로 선정하는 예식을 가졌다.



라파예트교회



글 | 차세원 통신원(유아부 교사)

유아부 안에 또 다른 공동체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2025년 3월 2일 오전 9시, 유아부실에 청년들이 몰려왔다. 20년 이상 교육부 교사로 있었지만, 한 부서에 청년교사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것은 유아부가 처음인 것 같다. 현재 더누림 청년들을 제외한 청년 1, 2부에 속한 청년 교사는 24명이다. 전체 유아부 교사 38명 중



2025년 유아부 교사

2/3가 청년교사다. 항상 청년교사가 부족하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런 날이 오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다.

올해 유아부를 11년째 섬기고 있는 이단비 교사가 앞장서서 청년 단톡방을 만들고 어떻게 유아부를 잘 섬겨야 하는지 오리엔테이션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오전 9시에 시작된 청년교사 OT에는 24명의 청년 중 15명이 참석하였다. 1년 동안 중요하게 진행되는 절기 예배와 성경학교와 어린이대회 등 프로그램 소개가 있었고 청년 선생님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개와 어떻게 유아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는지, 각자의 의견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안

이 병병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항상 유아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청년교사들을 위해 늘 기도와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기 때문이었다. 이 뿐 아니라 기존 더누림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 교사 선배들이 성실하게 그 자리를 잘 지켜 주었기에 가능했다.

올해 유아부 청년교사는 고등부를 졸업하고 들어온 5명의 청년을 제외하면 전부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청년들이다. 교사를 처음으로 하는 청년들이 많아 걱정했는데 50대가 되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나보다 더 유아부 아이들을 잘 챙기고 적극적으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은 참 감동적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우리 인간들의 계획과 예상보다 항상 뛰어넘기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어떻게 이 많은 청년교사와 기존 교사들이 잘 소통하고 어울리며 유아부를 섬길 수 있을지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며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저 바르게 반응하는 유아부가 되길 기도드린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꿈자람부 교사 M.T

글 | 구현진 통신원(꿈자람부 교사)

정해진 일정 속에서 친해지고 싶은 상대를 만났지만 당장 시간을 내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밥 한번 먹자!”는 말로 아쉬움을 삼키곤 합니다. 매주일 10명의 꿈자람부 교사가 함께 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기쁨의 예배 공동



체를 세워가고 있지만, 따로 시간을 내어 모두 함께 교제하기가 쉽지 않았던 우리에게 1박 2일의 교사 M.T가 2월 23(주일)~24(월)에 있었습니다.

장소는 영은설악센터! 꿈자람부는 매주일 오후 1시 30분에 예배(4~13세 어린이 대상의 통합 교육부서)를 드려서, 교사 대부분이 작년 10월에 있었던 영은설악센터 헌당예배에 참여하지 못 했습니다. 이번에 꿈자람부 교사들이 설악센터를 방문하게 되었고, 첫 방문이라서 장소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설악센터 인근에 있는 평범한 닭갈비식당도 최고의 맛집으로 여기며 감사하는 우리의 소탈한 먹성 덕분에 모두가 흡족한 식사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느지막이 도착한 영은설악센터의 밤하늘 별빛은 우리의 감성도 터치하여 “참 좋으신 하나님, 최고!”를 고백하며 M.T를 시작했습니다.

예배실에 모여 박선민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행3:1~10)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꿈자람부가 되길 결단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꿈자람부 공동체와 교사들, 꿈자람부 예배와 아이들, 꿈자람부의 여러 행사를 위해 전

심으로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뜨거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교사들, 자녀들과 함께 다과를 나누며 시작된 레크레이션과 단잠을 청하기까지 쭉 이어진 대화는 어린 시절의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의 최대치, 끊임없이 회자 될 우리만의 추억을 남긴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울이가 행복한 미소와 함께 “여기 너무 좋은데, 언제 또 올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영은설악센터 건축과 관리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떠올라 참 감사했습니다. 꿈자람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꿈자람부 예배를 기뻐하고 기대하는 어린이 예배자와 이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교사 한 분 한 분과 박선민 전도사님, 모두를 사랑합니다!



영은 문화아카데미 동계 블록세미나



2월 28일~3월 1일, 청년부 영은 문화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2025 영은 문화아카데미 동계 블록세미나>가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진행됐다. 김민식 목사님과 함께 20명의 청년과 3명의 교사 등 총 24명이 1박 2일 동안 로마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천로역정> 길을 순례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글 | 이병남 (청년부)

침묵하기 참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

성에만 귀기울이고자 떠났습니다. 길었던 겨울을 마무리하는 2월의 마지막 날 가평의 필그림하우스로 말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의 묵상, 메디타치오는 로마서와 천로역정을 중심으로 이 질문에 답하고자 했습니다. 천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십자가 앞에서 죄짐을 벗지만, 여정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초아 청년이 나뉘었던 대로 천성에 도착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난관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꼭 닮아있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승리해내야 할 경주가 산적해 있으니깐요. 그렇다면 믿음과는 별개의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일까요? 이신칭의와 삶의 예배 사이에서의 고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잠잠한 묵상 중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떠올랐습니다.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였을 그 찰나의 침묵 또한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기대와는 달리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던 주님에 대한 실망감, 뒤늦게 찾아오셨다는 섭섭함 등이 뒤엎혀 어쩌면 소리를 치고 싶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감정의 파도에 침묵하고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후 베드로의 삶은 항상 이 침묵에서 다시 시작했을 것입니다.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자신에게 다시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요. 해낸 모든 역사도 자신의 의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해주시는 은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 사용해주시는 사랑. 그것이 처음 믿음으로 시작한 복음의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마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색을 입히다 - 권사회 봄 수련회 -



글 | 김혜경B 권사



권사회 봄 수련회가 3월 12일 비전홀에서 86명의 권사님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 감사와 찬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색을 입히다”라는 제목으로 권사회 담당 정성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정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됨과 연합으로 합당하게 생활할 것과 대적자와 이단 사이 비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예수님의 선물인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달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또한, 기도와 영성에 한결음 전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권사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권사회 수련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신임 권사님들의 헌신된 특별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준비된 찬양으로 찬양 중에 거하시시는 주님의 임재를 위해 전심으로 찬양하신 권사님

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배 후에는 7층 식당에서 화려한 집밥 같은 뷔페 성찬으로 입과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12:30분부터는 우리 교회 더누림 회원이자 개그맨 출신인 정영진 청년이 진행하는 재미있고 신바람 나는 레크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권사님들은 끼를 발산시키며 서로가 하나됨과 연합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팀별 진행과 상품 나눔으로 더욱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으로 기도회가 짧아지는 아쉬운 불상사(?)도 있었지만, 부족한 기도는 매주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권사회 기도회>에서 대신하기를 기대하며 2025년 권사회 봄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하나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 더누림 수련회

글 | 이윤선 (더누림 회장)



지난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대내외적인 삶들도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영원히 한 계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영은교회 더누림 공동체(이하 더누림)도 지난 3월 7~8일에 영은 설악센터에서 열린 수련회를 통해 다가오는 봄을 맞이했습니다.

더누림은 만 33세 이상의 나이를 가진 미혼인 청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보니 서로 시간을 맞춰 1박 이상의 공동체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항상 수련회를 당일 일정으로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번에 처음으로 1박 수련회를 하게 되었고 다들 시간과 마음을 내어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입으라

네두림을 담당하시는
정성훈 목사님께서 “오
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
라”는 주제로 이틀 동안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
다. 우리 모두 각자 다양
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품고 있는 고민과 생각
들은 달랐지만, 하나님
의 은혜는 늘 세심하시
고 풍성하기에 예배를
통해 주신 주님의 신실
하신 사랑과 회복을 함
께 누리고 고백할 수 있
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 1
박 2일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섭리를 따라 바뀐 계절에 맞춰 변화하고 적응합니다. 더너뎼도 어둠에서 깨어나 빛으로 변화하고 적응하여 예수님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길 영은 교회 성도님들의 끊임 없는 중보 부탁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더너뎼의 다음 소식을 가지고 지면으로 또 찾아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올백데이 - 영은의 빛을 나누는 날

- 4월 20일 교회창립기념주일 행사 -



글 | 허 준 안수집사 (올백데이 준비위원회 총무)

오는 2025년 4월 20일 주일, 부활절과 교회창립 65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영은교회의 축제 ‘올백데이’가 영은교회와 당중초등학교에서 열립니다. 세대가 함께 모여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교회 공동체의 따뜻한 만남을 이루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당중초등학교가 시설을 개방하며, 우리 행사가 처음으로 학교를 사용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당중초의 문이 열린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이 학교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 상당수가 다니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여, 공간 자체가 지닌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행사는 오전 10시 ‘올백데이 통합예배’로 시작되며, 연합찬양대가 준비한 부활절 칸타타 ‘그가’가 이어집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점심 도시락과 함께 푸드트럭, 간식이 마련되어 따

뜻한 교제와 즐거운 나눔의 시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에어바운스, 레크리에이션, 퀴즈, 시상 등 다양한 친교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폐회식에서는 기념품과 시상이 함께 진행되어 행사의 여운을 나누게 됩니다.

이번 올백데이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

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별도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각 제직 부서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자발적인 헌신과 수고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당중초등학교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를 미리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행사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교회창립64주년기념 올백데이(KBS 아레나)

2025년 4월 20일 주일,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올백데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웃으며 나누는 그 날, 영은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은교회 & 당중초등학교에서 뵈겠습니다! 

[교회창립기념특집]

평생 영은교회를 잊지 못해요!
- 초대 박조준 담임목사의 교회 방문 -



영은교회 제1대 담임목사였던 박조준 목사가 3월 25일 화요일에 영은교회를 방문했다. CTS 방송사에서 박조준 목사 특집 촬영을 위해 박 목사의 첫 목회지였던 영은교회를 찾은 것이다. 이날 <화요직장인예배>가 있어서 예배 중 말씀을 전했다. 이후 박 목사는 교회식당에서 허남기 원로목사와 이승구 담임목사, 원로 및 은퇴장로님들 그리고 교회창립 교인들과 오찬을 나누며 반가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 영은교회의 초석을 놓다

1960년 11월 29일에 초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박조준 목사님은 1966년까지 6년 동안 목회하며 영은교회의 초석을 놓았다. 1960년 12월에 양평동 3가 8-3번지(현재 교회 위치)에 대지 200평을 구입하였고, 그 때에



다. 이 예배당은 2017년 비전센터가 그 자리에 들어설 때까지 57년 동안 영은의 역사와 함께했다. 박조준 목사님 재임 시 교회 이름이 두 번 바뀌었다. 1960년 12월에 ‘영중교회’에서 ‘영신교회’로, 1961년 4월에는 ‘영은교회’로 개명됐다.

1934년 평안남도 강동에서 출생한 박조준 목사님은 서울대 문리대 학사를 졸업한 후 장로회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신학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캘리포니아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0년대에 이룬 화려한 경력의 목사님을 영은교회의 초대 담임목사로 청빙하였다니 대단하다. 1960년 4월 24일 이창호 집사 댁에서 58명이 백용종 목사 인도로 창립예배를 드리고 교회설립 위원으로 한득권, 이창호, 김섭인, 김광수 4인을 선정했다. 위원 4명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갓 돌아온 26살의 젊은 목사를 영은교회의 초대 목사로 청빙했다. 참으로 놀라운 안목이다.

그래서일까?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교회인 영락교회에서 박조준 목사님을 한경직 목사 후임으로 모셔갔다. 박 목사님은 처음에는 영락교회의 초빙에 거절했지만, 지속적 요청으로 결국 영은교회를 떠나게 됐다. 박 목사님을 보내면서 영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영을 잃었다고 한다.

■ “영은교회는 내 첫 교회이니 잊을 수가 없지요!”



1961년 교회 건축 현장(좌로 두 번째 : 박조준 목사)

3월 25일, 영은교회 1층 로비에서 만난 박조준 목사님을 모두가 반갑게 맞았다. 교회창립에 참여했던 송미자 은퇴권사, 교회창립을 위해 집을 예배장소로 내준故 이창호 장로의 아들 이근영 장로, 박조준 목사님을 영은교회 초대 목사로 청빙했던故 김섭인 장로의 장남 김장욱 안수집사, 영락교회 부목사 시절부터 박조준 목사님을 잘 알고 지낸 영은교회 허남기 원로 목사님 등, 박 목사님을 잘 아는 영은의 많은 성도들이 함께했다.

“김후선 집사! 김 집사님보다 젊었던 내가 결혼 주례를 썼지요.” 박조준 목사님의 기억력에 나는 깜짝 놀랐다. 65년 전에 영은교회 창립교인이었던 나의 부친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목사님은 오래된 이름들과 얼굴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떠올리셨다. 대단한 기억력이다. “어떻게 다 기억하셔요?”라는 물음에 “영은교회는 내 첫 교회이니 잊을 수가 없지요!” 하신다. 영은교회를 떠났어도 교회 근처를 지날 때면 늘 마음이 간다는 목사님이다.

“평생 영은교회를 잊지 못해요. 장로님들이 ‘아니요, 글썄요’를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교회가 한국에 쉽지

않아요.” 박조준 목사님은 영은교회가 2부 예배를 영등포에서 제일 먼저 드릴 정도로 좋은 교회였다고 회상한다.

92살이라고 하기엔 정정하시고 꽃꽂이하신 박조준 목사님! 화요일, 목사님을 위해 차린 점심 메뉴는 스테이크 양식이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메뉴라고 했다. 고기도 다과도 똑딱 해치우셨다. 박조준 목사님의 뛰어난 기억력과 또랑또랑한 목소리 그리고 설교강단에서의 힘찬 메시지... 목사님에게는 세월이 비껴간 듯했다.



창립교인 송미자 은퇴권사와 박조준 목사

영은의 가족과 담소를 나누며



박조준 목사님은 작년에 국민일보가 주관하는 국민미션어워드의 제1회 존경받는 원로 목회자 대상을 수상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박조준 목사님은 영은교회가 배출한 한국의 ‘존경받는 목사’였다.  〈글 : 김명희 기자〉



박조준 목사와 허남기 원로목사, 이승구 담임목사 그리고 장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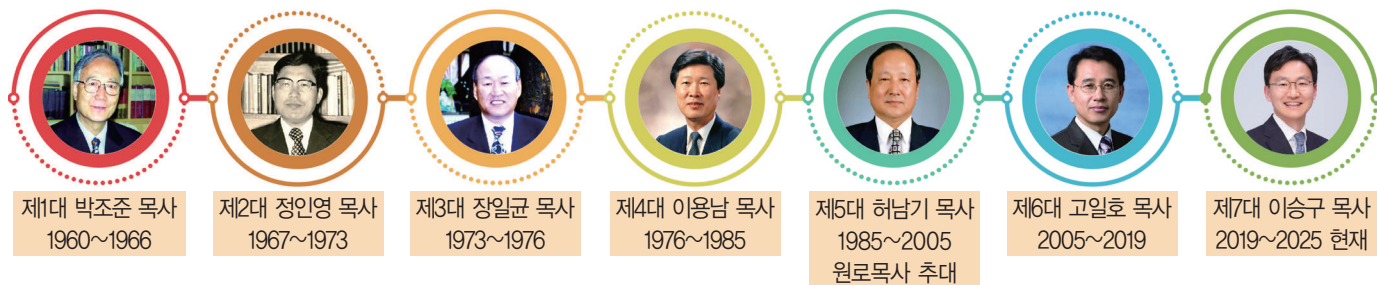
[교회창립기념특집]



글 | 최진삼 안수집사(사료실)

“영등포의 은혜로운 교회”
- 한 눈에 보는 영은교회 65년사 -

영은교회 역대 담임목사



‘영은교회’는 박조준 초대 담임목사가 지은 이름이다. 영등포 지명과 영생의 의미를 함께 담은 ‘영(永)’과 은혜의 ‘은(恩)’을 넣어 영은교회라 이름 지었다. 1960년대 대다수 교회가 지역명이 들어간 교회명을 가졌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 교회는 영신교회와 영중교회를 거쳐 영은교회로, 박조준 담임목사의 목회적 소망을 담은 이름을 갖게 됐다. 올해 교회창립 65주년을 맞아 영은교회 역사에서 은혜롭고 감사했던 주요 내용을 연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1960년대 : 영등포에 은혜로운 교회가 세워지다

제1대 박조준 담임목사(1960~1966), 제2대 정인영 담임목사(1967~1973)



초대 장로: 이창호 김수성 한득권 장로



제1회 주일학교 졸업(뒷줄 중앙 박조준 목사)



예배 입장 전, 기도(좌로, 김섭인 집사, 박조준 목사,
하득권, 이창호, 김수성 장로). 1962.10.28

1960년 4월 24일 이창호 집사 댁에서 58명 모여 예배드리며 창립한 우리 교회는 창립 이후 예배 처소를 옮겨 가며 예배를 드렸다. 1960년 11월 29일 박조준 목사가 교회 초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후 성전을 건축(1961)하고 장로 3

명(한득권, 김순성, 이창호)을 선출(1961)하고 당회를 세움으로써 교회의 기틀을 다졌다. 1960년대 교회는 교회학교(1960)와 함께 영은유치원(1964)을 설립함으로써 다음세대 양육에 힘썼으며, 남·여전도회도 교회에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영은유치원 소풍(1964.10.16.)
박조준 목사와 정복수 전도사(한복 착용)



여전도회 야외예배(1963.8.20.)



교회학교 졸업예배(초기 교회 분당)

2. 1970년대 : 영등포에 신앙의 불을 밝히다

제3대 장일균 담임목사(1973~1976), 제4대 이용남 담임목사(1976~1985)

1970년대는 우리 교회에서 국내 유명 부흥강사 목사들의 부흥사경회와 유명인의 신앙간증집회, 30/40/50일 새벽기도회가 있었다. 영등포 지역 복음화를 목표로 영등포구민을 위한 선교음악의 밤(1977)을 개최했고, 수원영은교회(1976)와 석포교회(1978), 강서/인천/화곡영은교회(1980)를 개척하는 은혜의 시기였다.



심령대부흥회(우 : 부흥강사/좌 : 이용남 목사)



영은교회가 개척한 석포교회(뒷줄, 이용남 목사)



영등포 구민을 위한 선교음악의 밤(장소: 경원극장, 2일 동안 진행, 1977년)

3. 1980년대 : 전도폭발로 무장하고 전교인의 청지기화

제4대 이용남 담임목사, 제5대 허남기 담임목사(1985~2005 원로목사 추대)

1970~80년대 영등포 지역의 도시 산업화로 인한 영등포 지역 내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청년부가 부흥한 시기다. 그 시절 청년들이 현재도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제5대 허남기 담임목사가 부임하면서 국제전도폭발훈련(1986)을 통해 전도의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2025년 현재 66기가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있다. 전교인 청지기화를 위한 장년 평생교육도 이때 실시됐다(1987).



4부 예배 시작(1982)



청년부(앞줄 중앙 : 이웅남 목사, 1982)



벤엘성서대학 졸업식(1984)



청년부 야외예배(1982)

4. 1990년대 : 전도의 사명을 해외선교로 펼치다

제5대 허남기 담임목사(현, 원로목사)

교회는 브라질에 이규현 선교사를 파송(1991)하였으며, 브라질 원주민교회(1994), 러시아 모즈독 칼리니느장로교회(1997), 러시아 모즈독 갈류가이장로교회(1999), 중국 여하리교회(2000) 등 해외에 교회를 지어 헌당하였다. 현재 늘푸른학교의 전신인 영은노인학교(1994)도 개교하였으며, 청년들의 유럽 여행 프로그램인 유스비전(1996)도 시작되었다.



러시아 깔리노장로교회 헌당예배



금요찬양단 3주년감사집회(1991, 교회마당)



제38회 국제전도폭발 한국지도자 임상훈련(1991, 영은교회) / 앞줄 중앙 : 허남기 목사

5. 2000년대 : 새로운 성전건축과 함께 문화선교로 나아가다

제5대 허남기 담임목사, 제6대 고일호 담임목사(200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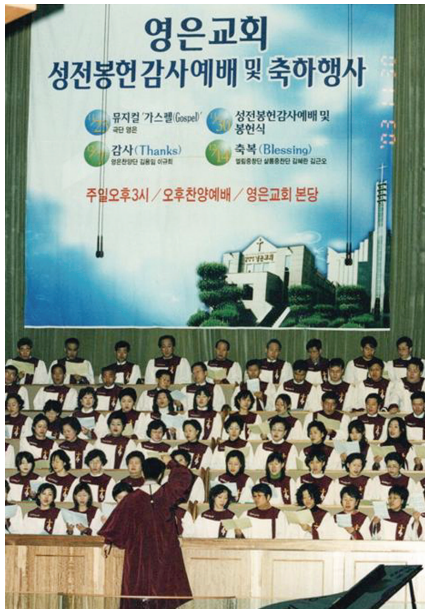
새로운 본당 건축(2003) 후 전교인수련회(2004)를 하였으며, 허남기 담임목사의 은퇴와 원로목사 추대(2005)가 교회 처음으로 있었다. 주5일제의 시대적 상황에 맞춰 영은꿈나무 토요학교(1997)를 개교하였다. 금요찬양단(현, 영은찬양단, 1988), 영은성극단(현, 마라나타, 1989), 영은실내악단(1989)은 1990년대를 거쳐 교회 내·외적으로 문화선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구) 본당 예배



원로/은퇴장로, (신) 본당 건축현장 방문



현재 본당인 성전봉헌 감사예배 및 축하식



영은가족캠프(2004.8.10.~12. 연세대 원주캠퍼스, 전교인 가족캠프)

6. 2010년대 : 가정사역을 바탕으로 비전을 세우다

제6대 고일호 담임목사(2005~2019)

희년 기념 단독 해외선교사 파송(2010, 중현덕&김숙진 선교사)은 현재 2대 말레이시아(사라왁 쿠칭) 선교사 파송(2023, 구용희&백현이 선교사)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정사역 가족캠프, 부부힐링투어(2015), 행복한 신혼부부학교(2017) 등 가정사역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비전센터 건축(2017)으로 다음세대 신앙교육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성경만독대행진 만독 달성(2020)도 감사드리는 한 부분이다.



영은교회 비전센터 입당감사예배(2017. 9)

7. 2020년대 : 코로나팬데믹을 극복하고 영은 색을 입히다

제7대 이승구 담임목사(2019~2025 현재)

2020년 코로나팬데믹으로 교회는 대면/비대면예배, 문고리 심방, 줌모임, 영상예배(유튜브) 등 낯설은 단어가 등장한 어려운 시기에도 올백데이/올백심방(2021)을 통해 예배와 모이기에 힘썼다. 영은설악센터 건축(2024), 본당 리모델링공사(2024)를 은혜중에 마치고 베이직 프로젝트 5년 차인 2025년은 표어를 ‘영은, 색을 입히다’로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영은설악센터(2024)



[교회창립주년 기념시]

영은교회 창립 65주년을 축하하며



글 | 이규곤 목사(남현교회 원로)

1960년 4월 24일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빛이 비취매
성령으로 감동받은 신여덟 명의 성도들이
가슴 뜨거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영등포 양평동 한 귀퉁이에 십자가 높이 올리니

가난하지만 용기종기 모여 정을 나누며 살던 이들
약속이나 한 듯 여기저기에서 모여들어 말씀에 은혜받고
기도로 힘을 얻으니 기쁨 충만하여 믿음 소망 사랑 넘치는
복된 영은교회이어라

봄날 새순이 돌아 자라며 큰 나무 되듯
주님 명령 따라 복음의 씨앗 뿌리기를 어언 60여 년
뿌려진 곳마다 생명나무 자라 열매 맺으니
이 땅과 바다 건너 이방지역까지 천국 지경 넓혀가며

진리의 꽃대를 굳게 세우고 힘차게 전진하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빛과 소금 되어 세상을 밝히는 영은교회여
길이길이 빛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가”



글 | 채수범 지휘자

부활절 칸타타 <그가>의 작곡가 우효원은 현재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 작곡가로 인천시립합창단 전임작곡가, 국립합창단 전임작곡가를 역임하였다. 부활절 칸타타 <그가>는 2007년에 작곡, 출판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온 성가곡인 7악장 ‘그가’를 포함해 총 11곡으로 작곡되어 있다.

칸타타 <그가>에는 단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외에도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그 메시지를 각 곡들의 가사와 여러 가지 음악적인 표현들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그 음악들은 매우 극적이며 또한 성부의 높은 음정들을 통해서 표현한다. 4악장 ‘갯세마네 동산에서’는 악상의 대조와 바리톤 솔로의 높은 고음에 국악기인 대금의 선율까지 더해져 예수님의 고뇌와 결국에는 순종하시는 장면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였다. 5악장 ‘죄와 죽음’은 매우 어지러운 리듬과 강한 악상, 그리고 고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곡으로 합창이 거의 절규에 가깝게 노래한다. 6악장 ‘Via Dolorosa(십자가의 길)’는 예수님을 못박으라는 군중들의 외침으로 시작한다. 대금의 구슬픈 멜로디와 채찍 소리, 십자가에 못박는 망치 소리,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 판결하는 장면, 그리고 여인들이 고통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매우 극적이고 애절한 곡으로 마지막에 아무 소리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 소리로 끝난다. 9악장 ‘Sitos(밀알)’은 이 작품의 유일

한 솔로곡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같이 걸어가겠다는 고백을 유려한 선율로 노래하는 곡이다. 10악장 ‘다시 사신 구세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노래하는 매우 축제적인 곡으로 힘있고 강한 리듬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곡이다. 긴 고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곡이 끝나게 된다. 11악장 ‘마라나타’는 매우 생동감 있는 리듬과 멜로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희망을 노래하는 곡이다.

부활절 칸타타 <그가>에는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겸손의 마음,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도 따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다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다는 희망의 메시지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부활절 칸타타를 통하여 영은의 모든 성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기도해 본다. **동행**





교육3부 젊은 세대 공동체 ‘더누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누리다



글 | 정성훈 목사(더누림)

더누림은 만 33세 이상의 싱글 젊은 세대를 위한 부서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평균 초혼 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결혼 적령기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싱글 젊은 세대를 결혼하기 직전의 형태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 열심히 그리고 자유롭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은 존중과 배려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약 794만 명입니다. 이것은 전체 약 2,200만 가구 중에 1/3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3 가정 중에 1 가정 이상은 단독세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사는 영등포 지역에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1인 가구는 40%가 넘습니다. 우리 영은교회 주변에 싱글 젊은 세대가 그만큼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교회 새가족 중에도 싱글 젊은 세대가 매년 10명 이상은 꾸준히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필요성을 생각할 때 우리 영은 교회에는 싱글 젊은 세대를 잘 섬겨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가 더누림입니다. 만 33세 이상의 싱글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 교회 안에서 원만하고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섬기기 위함입니다.

더누림에게는 징검다리의 사명도 있습니다. 청년부와 장년부 사이에 있는 싱글 젊은 세대들이 청년부를 잘 졸업하고, 장년부 안에서 잘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결혼 후에는 어울림 공동체(젊은 부부 공동체)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더누림에서 매년 3~4가정을 신혼부부공동체에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징검다리의 사명은 교회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더누림 공동체의 회원은 교육2부(청년부)에서 올라온 지체들을 비롯하여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젊은 세대, 나아가서는 더누림과 같은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젊은 세대입니다. 활동으로는 ‘주일 4부 예배’를 함께 드리며, 예배 후에는 정기적인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성경통독, 제자훈련, 신앙특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영은설악센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주제로 봄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낮과 같이 단정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 진지하게 묵상하고 기도로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은교회의 현존하는 미래인 더누림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많은 젊은 세대들을 섬기고, 영은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아픈 채찍을 휘두르시기 전에, 우리는

글 | 이숙경 기자

얼마 전 잇몸에 염증이 생겨 끝내 발치를 했다. 40대에 생니를 뽑아야 한다니. 어떻게든 버텨보고 싶었으나, 내버려두면 염증이 점점 번져 다른 치아의 뿌리를 녹일 수 있다고 해서 하는 수 없었다. 생활하기도 불편하고, 발치 후의 통증도 꽤 오래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야만 하는 선택이 있다.

우리는 때때로 당장의 고통과 손해를 면피해보려, 후에 닥쳐올 더 큰 고통과 손해를 눈감고 모르는 척하는 때가 있다. 혹은 당장 눈앞의 문제가 아주 작고 별 볼일 없어서, 덮고 넘어가면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착각하고는 한다. 마치 내가 잇몸에 생긴 염증을 어떻게든 참고 넘어가보려 했던 것처럼 말이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이다. 그는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께 바쳤을 때 그를 거두어 키운 자이고, 사무엘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알지 못했을 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사무엘상 3:9)” 라고 가르쳐준 스승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아주 개차반이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갈취하거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과 부정을 저지르는 등(사무엘상 2:17, 22) 악행도 아주 골고루 저질렀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지게 하느냐.(사무엘상

2:29)” 라고 경고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단호히 처벌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었고, 법궤는 빼앗겼으며, 엘리 제사장 본인도 이 소식을 듣고 놀라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사망한다.

만약 두 아들이 악행을 막 저질렀을 즈음에 단호히 처벌하고 가르치고 확실하게 매듭지었다면, 이토록 큰 불행이 닥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신속하게 처벌받는 것이, 그들이 당할 가장 작은 불행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적당히 타이르고 덮고 넘어가면 없는 일이 되는 줄 알았으리라. 어떻게든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으리라.

불교의 핵심이 자비라면,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 잘못마저 덮어주고 오냐 오냐 달래어 넘어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곤 한다. 그런 것이 사랑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시장판을 차리고 앉은 것들에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 채찍이 그나마 가장 덜 아픈 훈계였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았을까? 당장 혼내는 게 불쌍해서 못 본 척 지나쳤다면, 후에 하나님의 더 크고 두려운 진노를 받게 되었으리라는 것을 알았을까? 깨진 유리창을 내버려두면 좀도둑이 들고, 좀도둑을 눈감아주고 넘어가면 강도가 드는 법이다. 아직도 육신거리는 발치 자리를 확인하며, 내 안에 깨진 유리창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본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화내시기 전에, 도려내야 할 죄악과 범죄가 있다면 확실하게 끊어내야만 한다. 어느 노랫말처럼,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영은설악센터 자율기도회 실시

- ① 대상 : 기도하고 싶은 전교인
- ② 일시 : 매달 첫째 주 월요일(휴일이면 둘째 주), 4/7(월)
- ③ 센터개방시간 : 오전 10시~오후 4시
- ④ 운영방침 : 각자 개인차량 이용
- ⑤ 주관 : 영은설악관리팀
- ⑥ 신청 및 문의 :
임재화 안수집사(010-2226-1016) / 최진삼 안수집사(010-5909-5175)

▶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 로 목 사 허남기
 담 임 목 사 이승구
 부 목 사 최광주 이준희 이에리아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교 육 목 사 전수현
 전 도 사 장미애 김영락 김찬영
 교육전도사 나진희 박선민 황금성 황예찬 손예지
 정희수
 파 송 선 교 사 구용회 백현이
 협 동 목 사 소병찬 김규리

▶ 영은교회 찾아오시는 길



▶ 영은교회 예배시간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본 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본 당
수요일예배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본 당
금요심야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본 당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1층 영아부실
유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소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꿈자람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2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고등부	주일 오전 9: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청년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월간동행 e-mail : yemagazine@naver.com